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보 도 자 료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배 포 일	2021. 11. 19. 시 이후	매 수	총 1매
담당부서	일자리사업본부 / 사업개발부	담당자	부장 성연민(02-3415-6930)
			선임 이상아(02-3415-6934)

2021년 제3회 자활정책포럼 개최 ‘더 나은 일자리와 소득, 삶으로의 진입을 위한 자활사업 경로 찾기’

- 2021년 제3회 자활정책포럼 개최(11. 12,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우리나라 자활사업이 나아가 할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더 나은 일자리와 소득, 삶으로의 진입을 위한 자활사업 경로 찾기’라는 주제로 연합학술대회 공동주최(제 3회 자활정책포럼)를 통해 11월 12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이병학 원장,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이문수 사무총장, 전국광역자활센터협의회 이현수 정책위원장, 한신대학교 이인재 교수 등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와 지역자활센터 실무자 등 276명이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이상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선임연구원, 백학영 강원대학교 교수의 발제 후, 유만희 상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라운드테이블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자활의 개념을 정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자활사업의 목표와 그동안의 자활사업 성과, 기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였다.

* 발제자 : 이상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선임연구원

두 번째 발제에서는 자활사업의 변화 단계별 자활사업 참여자, 내용, 전달체계, 기금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현재 자활사업 내에서의 논쟁지점을 제

시하였다.

* 발제자 : 백학영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에서는 자활사업을 둘러싼 제도의 변곡점을 기준으로 자활사업이 앞으로의 방향과 취약계층 노동과 복지 정책으로서 역할에 대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그동안의 유의미한 연구결과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자활정책과 관련하여 주제별 논의와 이슈 확산을 위한 자활정책 포럼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근로를 통해 저소득 참여주민들이 기술을 습득하여 자활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